

학생들 위한 환경운동 학습서 쏟아진다

미래의 환경파수꾼 키우는 노력... 기초적 실천프로그램 다양하게 제시

케냐의 속담에 “자연은 조상으로부터 물려 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으로부터 빌려쓰고 있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오늘의 지구환경은 후손들에게 빌려온 그대로 고스란히 되돌려 주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환경파괴에 있어 그 심각성과 속도는 날로 가속화 되고 있으니 말이다.

지금 지구의 곳곳에서 일어나는 환경파괴 현상은 크게 여덟가지로 나타난다. 자동차 배기가스와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사막화 현상, 오존층 파괴로 인한 온난현상, 산성비, 수질오염, 열대우림의 감소화, 화학물질공해, 핵위협 순이다. 대기오염은 우리나라 서울만 해도 환경기준치를 넘어서고 있다.

물론 이러한 환경오염의 1차적 책임은 인간 모두에게 있다. 캔자스 대학에서 미국 환경사를 전공하고 있는 도날드 워스터 역시 그의 저서 「자연과 재산」에서 환경을 병들게 하는 건 바로 “현대 문명 그 자체”에 있다는 말을 한다. 인간의 “물질주의적 세계관”이 내세우는 그 무한정의 경제 ‘성장’, 혹은 ‘발전’이 지구를 치명적인 파괴로 몰고 갈 것이라는 경고이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책들

인간이 파괴한 환경이 갖가지로 오염되어 다시 가해자인 인간에게로 되돌아 오고 있으며 그 폐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우리사회도 지구환경 전체가 환경오염의 위협 수위를 넘나들고 있는 시점에 와서야 비로소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고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정책이나 캠페인 등을 대대적으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 환경오염에

제동을 거는 환경교육서들이 출간되고

있다. 생태계의 순환원리와 갖가지

실험을 통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말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환경학습이 생활속에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미래의 지구환경을 가꾸

나갈 학생들이야말로 “푸른

환경만들기”의 주역이 될 것이다.

로 벌이고 있다.

들썩이는 여론에 힘입어 우리나라도 가정, 학교, 직장에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푸른 환경만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기미가 보인다. 그중에서도 가장 호응도가 높은 집단은 학교이다. 환경문제를 인식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대기환경과 생태계의 순환원리를 설명하면서 환경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을 위한 환경교육서도 줄지어 쏟아지고 있다. 이 책들이 공통적으로 다루는 내용은 심각한 환경오염의 원인과 대책을 밝혀보는 것이다.

환경문제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책이 있는가 하면, 여기서 좀더 들어가서 환경교육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책도 다수 출간되고 있다.

먼저, 환경오염의 폐해상황을 언급한 책으

로는 「우리 땅 곳곳 아프지 않은 곳이 없네」(이경재 저, 푸른산) 「환경과 건강」(이창기 저, 하서) 등이 있다. ‘금수강산’ 복원을 꿈꾸는 이경재씨(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가 쓴 「우리 땅 곳곳 아프지 않은 곳이 없네」는 우리 국토의 환경파괴 상태가 낱알이 기록돼 있다. 우리나라의 각 국립공원, 도시녹지, 개발현장, 외국의 국립공원 등을 직접 답사하면서 발로 쓴 이 생태계 환경기행서는 “사람들이 만든 위락시설이 결국엔 자연의 근본 질서를 흔들었다”고 성토했다. 「환경과 건강」은 대기오염과 중금속들이 인간에게 어떠한 건강장애를 가져다 주는지를 분석한 책이다. 특히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카드뮴, 농약, 방사능 등의 피해사례를 다루고 있어 오염된 환경의 위험을 일깨운다.

환경교육의 방법론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어 교재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학생들에게 간단한 실험을 통해 오염도를 측정케 하는 책도 있고, 생활중에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운동의 사례들을 엮은 것도 있다. 전반적인 성향은 학생들에게 환경교육을 실행할 수 있도록 주제별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제별 환경프로그램에 의해 환경학습과 더불어 간단한 ‘실험’을 권하는 책은 「환경교육의 길잡이」(교회환경연구소, 좋은책) 「지구환경 실험교실」(최무용 저, 정훈) 「엄마, 지구가 죽어간대요」(학교법인 체철학원 엮음, 교보문고) 「지구를 되살리는 소년들」(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엮음, 김영사) 등이 있다.

어린이들을 위한 기초적인 실천프로그램을

수룩한 「환경교육의 길잡이」는 국민학생들에게 맞도록 주제별로 정리한 책이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얘기하는 건 다른 책과 다를 바 없지만 어린이들에게 직접 실험을 통해서 오염도를 측정케 한다. 이를테면 대기오염에 가장 민감한 지표식물인 나팔꽃의 잎을 관찰해 오염도를 측정하는 것도 실험의 한 예가 된다. 또 자동차의 매연을 양말로 측정해 보는 등의 여러가지 방법도 권한다.

「환경교육의 길잡이」에 제시된 실험수준을 한단계 높여 국민학교 4~5학년에 맞춘 프로그램이 수록한 것이 「지구환경 실험교실」과 「엄마, 지구가 죽어간대요」이다. 「지구환경 실험교실」은 이전에 「돌풍 그린라운드」라는 책으로 환경과 경제의 문제를 현실감있게 다뤘던 최무용씨(건국대 이과대 교수)가 학생들에게 기초 과학원리를 이용해 환경오염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권하는 책이다. 일변 “자연의 원리를 학습하면서 그 소중함도 함께 인식한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엄마, 지구가 죽어간대요」는 학교에서 배운 실험을 집에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실천하도록 한다. 환경운동의 활동범위를 좀더 확대시킨 책이 바로 「지구를 되살리는 소년들」. 세계스카우트연맹(WOSM)과 세계자연보호기금(WWF)에서 엮은 책을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게 다시 펴낸 책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환경교육 실험 프로그램과 실천사례들이 알기 쉽게 기술돼 있어 ‘활동에 의한 학습’의 면모를 보여준다.

이처럼 환경교육의 방법론을 ‘실험’에 초점을 맞춘 책들은 주로 생활주변에 있는 재료들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며, 실

흑인 소년 삼미

G. 스타스 지음/김홍래 옮김/128면/3,000원

어린이도 공감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이야기를 통해 인종 차별, 장애자, 소외된 사람, 가족간의 갈등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어린이들이 “사랑”으로 이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어린이의 사회성 함양에 도움이 된다.

인간과 신에 대한 파스칼과 노자의 이해

조명애 지음/236면/5,500원

철학 박사학위 논문 시리즈의 제3권으로, 서양과 극동의 영적 생활에 깊은 발자취를 남긴 파스칼과 노자의 사상을 그들이 남긴 작품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일목요연하게 비교·분석했다.

깃발인가 바람인가 마음인가

엄복명, 엄철 편저/신하령, 김태연 옮김/208면/4,500원

중국철학우화 세번째 책으로, 중국의 빼어난 철학 우화 77가지를 중국적 향취가 물씬 풍기는 화보와 함께 모아 엮은 것이다. 독자는 이 책을 통해 기지와 해학, 삶의 지혜를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의 과학철학 2

A.F. 차머스 지음/신일철, 신중섭 옮김/224면/5,000원

1985년에 번역·출간된 《현대의 과학철학》에 이어 나온 것으로, 과학적 방법에 대한 정통적인 철학적 해석을 거부하면서 동시에 객관적 지식으로서의 과학을 제한적으로 옹호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준다.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130-072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대표전화 924-6161 팩시밀리 922-4993



중로서적에 한 코너를 차지한 환경교육서. 학교에서 실행하는 환경교육의 열기를 짐작케 한다.

힘 및 현장실습을 통해 기초자연과 생태계의 원리를 아울러 학습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물론 교사들에게 매우 효율적인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는 환경교육서라 하겠다.

환경교육의 길잡이와 그 방법론도 다양해

환경학습의 결과는 '실천'으로 이어져야만 효과가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학습시킨 환경학습은 나름대로 장점을 갖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생활에서 실천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각 학교에서 학생들과 더불어 실천했던 환경운동의 사례들을 모은 책도 환경운동의 교재로 쓰이기에 부족함이 없다.

「우리들은 환경 파수꾼」(김용근 저, 푸른나무)와 「최열아저씨의 환경이야기」(최열 저, 청년사) 「환경을 위한 나의 하루」(부천 YMCA 사회교육부 편, 부천 YMCA 출간)

「환경학교」(환경과 공해연구회 편, 따님) 「민들레 교실」(편집부 편, 우리교육) 등이 대표적이다.

이중에서 「환경을 위한 나의 하루」는 대상을 유아층으로 한껏 좁힌 환경교육서. 유아들에게 생활에서의 실천지침을 일러주는 책으로, 학교에서 환경 교육서로 사용해도 무난하도록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이 책은 생활속에서의 환경운동 방법들을 제시하며 그달 그달의 환경 실천사항을 점검한다.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열 아저씨의 환경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먹거리와 물, 공기와 쓰레기 이야기를 다룬다. 이들 현장 사례집들의 미덕은 학생들에게 환경운동을 스스로 실천하게끔 도와준다는 것이다. 또 각 학교에서 실천하고 있는 환경운동의 다양함과 그 열기를 짐작케 한다.

그의 생활 속에서 “이것만은 꼭 실천하자”는 내용의 실천과제를 수록한 책도 있어 눈길을 끈다.

「사랑해요 지구아저씨」(장원 글, 전기운 그림, 김영사) 「지구를 살리는 50가지 방법」(노혜숙 엮음, 지구를 위한 모임) 「환경사랑법」(전기운 저, 김영사)이 그 대표적이다. 이 책들은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부모, 교사, 직장인들까지 연계해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사랑법을 제시한다. 「사랑해요 지구아저씨」 경우, 50페이지 남짓한 이 알파한 책자는 환경운동을 위한 명목으로 특별보급가 1000원에 판매되고 있기도 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환경도서들이 제시하는 실천과제는 생활중에서 “작은 노력”을 기울이면 해결되는 문제다.

크게는 물자절약과 에너지 절약 차원에 도움이 되는 환경운동을 우선적으로 다루는데, “깊은 밤에 푹푹 떨어지는 수돗물을 잠근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환경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곳곳에서 튀어나온다. 밤중에 떨어지는 물방울을 절약하면 한달에 1.2톤을 더 쓸 수 있다고 한다. 그외에도 학생들에게 플라스틱, 비닐과 같은 일회용품은 사용하지 말 것과 에어컨 보다는 부채를 사용할 것, 종이 절약 차원에서 참고도서나 책은 물려줄 것, 학교에 사물함을 설치할 것, 다 쓴 건전지와 유리병, 알루미늄 캔은 재활용할 것, 따라서 쓰레기는 분리수거할 것을 권한다. 또 농약중독의 피해를 예방하려면 수입식품은 절대 먹지말기를 거듭 강조하며 소음도 환경에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무엇

보다도 어린이들 스스로가 푸른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학습은 “환경운동”으로 이어져야

현재 우리나라의 하천은 상수도원이 되는 하천들까지도 “거품 하천”으로 불릴 만큼 오염이 심각하다. 따라서 가정에서는 삼푸와 린스를 적게 쓰고, 합성세제 보다는 비누를 써야 한다. 이런 심각한 오염상태를 알면서도 환경운동을 실천하지 않으면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연환경이 더이상 없을 것이다. 「지구를 부수지 않고 사는 방법」(쓰치다 다카시 저, 양윤옥 역, 한살림)에서 저자는 삶의 방식을 “자연으로 회귀해서 농업사회의 세계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고 일축한다. 그러나 완전히 자연으로 회귀할 수는 없어도 쾌적한 환경을 가꾸자고 의무는 누구나 통감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

현재 환경운동단체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환경교육용 시청각 교재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 공해피해와 중금속 피해사례를 다룬 「공해 I, II」, 곤충의 서식지를 찾아서 하천의 오염도를 측정하는 「수서곤충」, 환경오염 과정을 그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외에 여러 종이 있다.

환경운동가들은 “만약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환경교육서와 교육용 슬라이드를 함께 병행”하기를 권한다. 효과적인 환경교육을 받은 어린이들이야말로 「환경 파수꾼」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 배은희 기자

■ 십팔사략(十八史略)이란?
중국의 정사 26종 중 사마천의 사기(史記)에서 탁극탁의 송사(宋史)까지 18가지의 정사를 원나라 때 증선지가 십팔사략으로 요약한 책.

지금, 4천년 중국 역사의
주역들이
고우영의 유머와 해학속에
다시 태어난다.

고우영 만화 십팔사략

중국 역사중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사료와 인물들을
충만라하여 뛰어난 경영전략, 인생지략은 물론 삶의
철학과 깊이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가 : 5,000원(각권)

총 10권의 고우영 대하 만화소설 - 만화 십팔사략

- 1 삼황오제에서 서주(西周)까지 6 후한(後漢)시대
- 2 춘추(春秋)시대 7 삼국(三國)시대
- 3 전국(戰國)시대 8 남북조(南北朝)시대
- 4 시황제(始皇帝)의 천하통일 9 당(唐)의 흥망
- 5 함무(項羽)와 유방(劉邦) 10 북송(北宋)·남송(南宋)시대

총 10권 중 ①②권은 절찬리 판매중!!

동아출판사
☎ 861-4818

